

바흐의 <마가 수난곡>과 '역사적 예수학'의 의미

13세의 소년이 한 악기점에서 낡은 악보를 손에 받쳐 들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가 굉장히 흥분해 있으며, 그 흥분은 이제 악기점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의 어깨에 짊어진 첼로가 아닌 악보가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전공인 첼리스트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한 사람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추앙받게 되는 이 소년은 96세로 죽기 전까지 자신이 발견한 악보를 연구하고 연주하는 일을 사명처럼 여겼다.

글_최윤구

<마가 수난곡> 연주의 독보적인 존재, 톤 쿠프만

소년의 이름은 '파블로 카잘스'였고 그가 발견한 악보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다. 주의할 점은 그 '발견'이 순수하게 사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비록 오늘날과 같은 유명세와 인기는 누리지 못했지만,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연주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곡이 첼리스트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까지는 카잘스의 평생에 걸친 '전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영역을 벗어나면 카잘스의 역할이 '전도'가 아닌 '발굴'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는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손쉽게 눈 아래로 놓기 전에 대체로 사람들은 우연과 운명이 되풀이 도와주는 가운데 선택된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신화'를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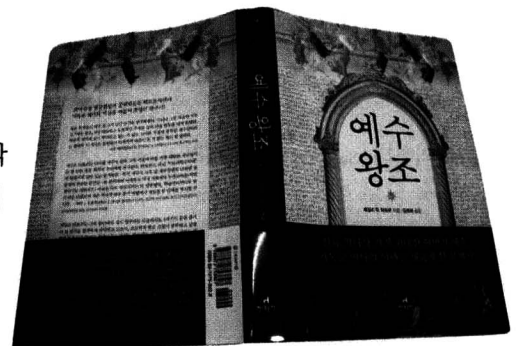
영웅과 신화는 합리적인 역사 기술이 태동하기 전부터 사이좋은 단짝이었고, 합리적인 역사 인식과 기술(記述)이 주류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사랑을 받았다. 카잘스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얽힌 사연과 대중들의 오해는 그 좋은 예다. 지금은 서양 음악의 범주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바흐의 음악은 뜻밖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하는 바흐의 수난곡은 <마태>와 <요한> 두 곡 뿐이지만 그의 사후 4년 뒤인 1754년에 간행된 바흐의 추도기(追悼記)에 의하면 바흐는 다섯 곡의 수난곡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세 작품은 그 악보가 유실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데 연주된 것을 근거로 한 지금까

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복음서 별로 하나씩, 총 네 개의 수난곡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가 수난곡>은 그 중 하나로 마태와 요한 수난곡의 대본을 썼던 피칸더가 쓴 대본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악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지금도 <마가 수난곡>의 연주와 레코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피칸더의 대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본을 토대로 바흐의 종교 칸타타들에서 곡을 따와 편집했던 것이다. 바흐 자신의 후기 종교곡들(<B단조 미사>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이 이같은 작업관행을 따르고 있기에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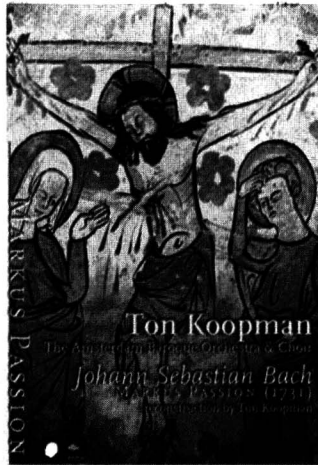
하프시코드 주자이자 지휘자인 톤 쿠프만은 이런 방식에 의한 <마가 수난곡> 연주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다. 약 300곡 정도로 추정되는 바흐의 종교 칸타타들에서 따와 편집된 형태로 연주되는 <마가 수난곡>에서 바흐 칸타타 전집을 녹음하고 있는 쿠프만이 책임자로 손꼽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쿠프만은 순전히 바흐의 칸타타 전집을 녹음하기 위해 레코드 회사를 차렸고, 정격음악 분야의 살아 있는 신화인 존 엘리엇 가디너도 몇 년 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쿠프만의 <마가 수난곡>은(CHALLENGE CLASSICS CCDVD 72141) 2003년 3월, 밀라노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은 DVD도 나와 있는데, 최신



(예수왕조)
제임스 D. 타브르 지음 | 김병화 옮김 | 현대문학
455쪽 | 값 19,000원

영상물답게 화질과 음질이 모두 뛰어난 이 DVD는 일급의 하프시코드 주자이기도 한 쿠프만이 직접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CD보다 여러 모로 '구경거리'가 많다.



《예수왕조》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학' 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역사적 예수학'은 우리나라에선 낯설지만 역사가 백 년도 더 된 어엿한 학문의 한 분과다. 사실 학문의 역사에서 '역사적 예수학'이 유별난 존재는 아니다.

어떤 사상이 사회, 혹은 문명권 전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믿음이 아닌 지성으로 그것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예수왕조》는 얼마 전 번역 출간되기도 한 《예수의 무덤》의 다큐멘터리 버전의 주요 출연자이기도 했던 '제임스 D.타로'의 저술이다. 그의 책 역시 예수의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운을 떼고 있기는 하지만, 서론을 벗어나고 나면 주인공이 예수일 뿐 이집트 파라오의 미지의 피라미드 무덤과 황금 가면의 비밀을 밝히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발굴담에서 벗어난다.

그 이후 이어지는 본론이야말로 '역사적 예수학'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나아가서는 이 학문을 저주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훌륭한 사례다. 예수와 세례 요한이 각각 구약성서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 해당하는 메시아들(한 사람은 왕으로서 한 사람은 사제로서)이었고, 예수 사후에는 그의 동생인 야고보가(정치적 군장으로서의 메시아인 예수가 창시한) '예수왕조'를 이어나갔다는 타로의 주장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파격 정도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프랑스에서 살았으며, '성배'란 바로 이들을 뜻한다는 《다빈치 코드》나 그 아류와는 달리 엄연한 학문분과인 '역사적 예수학'이 이간 쌓은 학문적 성과에 기대고 있다. 타로는 스캔들 위주로 페이지를 뒤덮어서 독자의 눈길을 끄는 손쉬운 방법을 거부한다.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목수' 요셉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인일지도 모른다는 소재를 다루는 타로의 태도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대역사가 아들프 다이스만의 《판테라라는 이름》이라는 짧은 논문에서 제기되었다고 밝히는데, 이어지는 서술은 선정적인 소재가 어떻게 그 흥미로움을 잃지 않고 학문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도 좋은 예가 되 어준다.

무엇보다도 《예수왕조》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수가 태어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의 죽음 뒤에 동생인 야고보와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

하러 나선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데에 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책이라고 설명한다면 지나친 과장이겠지만, 한국의 독자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역사적 예수학'으로의 길잡이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추천사 정도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영지주의다》(성경 :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여기에 역사적 예수학의 입장에서는 계시와도 같았던 《사해문서》의 발굴 이후 활발해진 영지주의의 운동에

대한 요령 있고 친절한 입문서인 스티븐 윌러의 《이것이 영지주의다》는 인류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기독교를 보는 안목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비술라르의 인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문학 애호가들의 관심품목이었던 영지주의의 본래 성격과 역사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약판 예수왕조'라고 할 수 있는 《성경 : 고고학인가 전설인가》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고 싶다.

"그러나 성경의 진실성은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나팔소리에 무너지고 다윗이 팔매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 등의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의 실존을 뒷받침하는 충실한 역사적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서사시의 위력은 인간의 해방, 압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사회적 평등의 추구 등 시공을 초월한 여러 가지 주제를 설득력이 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데에서 우러나온다. 성경은 모든 인간사회가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공동의 기원, 체험, 운명의식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식을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예수왕국》의 저자가 이 책을 헌정한 '역사적 예수학'의 선구자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서른 살이었던 1906년에 내놓은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는 이 분야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인문·철학뿐만 아니라 음악과 의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쌓은 그 사내는 생애 후반 50년을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슈바이처'다. 참, 아까 그가 음악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고 얘기했던가? 그는 당대 일급의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바흐의 오르간 곡들을 연주한 것이 레코드(EMI)로도 남아 있다. SP 초창기의 열악한 음질이지만 그 녹음을 들으며 감동 받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성이 이처럼 위대한 예술을 즐기는 데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쯤을 알기 위해 누군가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최윤구 님은 《월간 코드》 《조이클래식》 《월간 오디오》 《What hi-fi》 등에 음반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